

“국민 10명 중 9명, 도시에 산다”

국토부, 2018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탈 도시화 현상에도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도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가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2만명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1.8%(4759만 명)로 집계됐다. 읍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6286km²의 약 16.7%(1만7789km²)에 우리 국민 열 중 아홉이 살고 있는 셈이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를 기록한 이래 1980년 68.7%, 1990년 81.9%, 2000년 88.3%, 2019년 91.8%로 증가 추세다. 도시지역의 면적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 지정 면적은 주거지역(14.0km²), 상업지

역(3.7km²), 공업지역(16.6km²), 녹지지역(11.8km²) 등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경남 창원시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으로 기존 해면부 미지정지역 면적이 도시지역에 반영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8만 8497km²는 농림지역 4만9351km²(46.5%), 관리지역 2만7223km²(25.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1923km²(11.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관리지역(42.9km²), 농림지역(5.4km²)은 증가했다.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충남 홍성(32.3km² ↓), 강원 철원(12.7km² ↓) 등에서 진행된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24.4km²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30만5214건(22566km²)으로 전년(30만

5201건)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건축물의 건축이 18만6683건(61.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8만3922건(26.7%), '토지분할' 2만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불건적지'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등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19254건(40.1%)으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085건(36.3%), 전남 2만8567건(24.4%) 순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7859건(44.4%), 강화군 5657건(10.5%), 청주시 5523건(28.5%), 양평군 5518건(5.9km²)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3km²으로 교통신설(2396.6km²)이 가장 많고, 교통시설(1847.3km²), 공간시설(1469.2km²), 공공문화체육시설(1013.9km²), 유통 및 공급시설(241.8km²), 환경기초시설(109.2km²), 보건위생시설(49.0km²) 등 순이다. 이 중 집행 면적은 6012.6km²(84.4%), 미집행은 1114.7km²(15.6%)이다.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km²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16.4km²), 하천(88.1km²), 유원지(62.9km²)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0.2km²로 가장 많고 경북(136.1km²), 경남(121.7km²), 전남(87.5km²), 서울(64.3km²) 순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K7 프리미어' 출시 가솔린·하이브리드 등 5가지 엔진 라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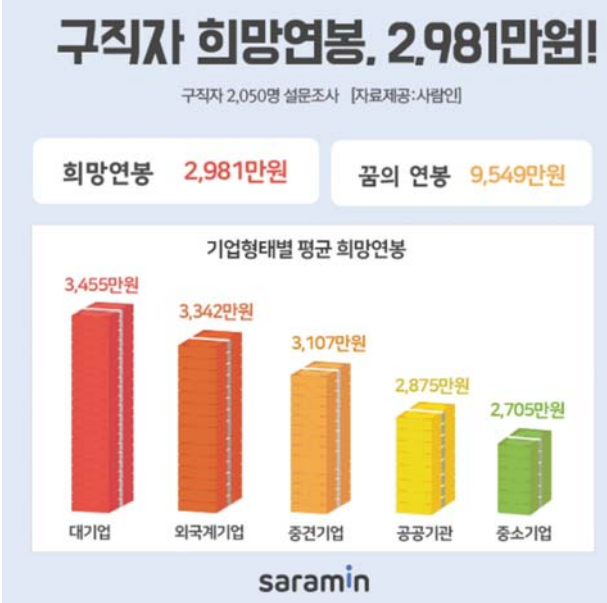
기아자동차는 2016년 1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K7의 상품성 개선 모델 'K7 프리미어'의 가격을 확정하고 정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아차는 K7 프리미어를 세분화된 고객의 수요에 맞춰 ▲2.5 가솔린 ▲3.0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2.2 디젤 ▲3.0 LH 등 5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동시에 출시했다. K7 프리미어는 전장이 4995mm로 기존보다 25mm 길어졌으며, 확대된 인탈리오(음각) 라디에이터 그릴과 차체를 가로질러 좌우의 리어램프와 연결되는 커넥티드 타입의 라이팅 디자인을 통해 담대하고 웅장한 외관을 완성했다.

뉴스

구직자 희망 연봉 '2981만원'

대기업 3455만원 VS 중소기업 2705만원...꿈의 연봉 9549만원

구직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연봉은 평균 2,98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구직자 2,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2,400~2,600만원 미만(16.1%), 2,800~3,000만원 미만(12%), 3,000~3,200만원 미만(10.5%), 2,200~2,400만원 미만(10.1%)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280만원)이 여성(2,794만원)보다 평균 486만원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3,510만원), 4년제 대졸(3,159만원), 전문대졸(2,768만원), 고졸 이하(2,688만원) 순이었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형태별로 희망 연봉 수준도 차이가 있었다. 먼저, 대기업이 평균 3,45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국계기업(3,342만원), 중견기업(3,107만원), 공공기관/공공기관(2,875만원), 중소기업(2,705만원)의 순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균 희망 연봉의

격차는 750만원이었다. 그러나 구직자들의 절반인 47.8%는 취업 시 희망하는 만큼 연봉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 구직자의 83%는 희망하는 연봉을 낮추더라도 우선 입사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 64.7%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이전보다 희망 연봉을 낮추었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심해진 구직난에 희망하는 연봉 수준보다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우선 입사해 경력을 쌓고, 이직 시 몸값을 올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구직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이 꿈꾸는 '꿈의 연봉'은 얼마일까. 일생 중 연봉이 가장 많을 때를 기준으로, 받고 싶은 금액은 평균 9,54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남성(1억134만원)이 여성(9,183만원)보다 861만원 많았다. 지원 예정 기업별로는 대기업(1억 2,164만원), 외국계기업(1억1,500만원), 중견기업(9,899만원), 공공기관/공공기관(9,654만원), 중소기업(7,925만원)의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최종 목표 연봉 격차는 무려 4,239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51.2%는 실제로 '꿈의 연봉'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

“하반기 투자 계획 없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투자 확대·신사업 진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10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여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 결과 응답 기업 88.4%는 하반기 경영전략으로 단순히 내실을 다지거나(60.2%), 사업축소 등 생존우선(26.2%)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투자확대(5.6%), 신사업·신기술 도입(8.0%)을 계획중인 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측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하반기 투자확대·신사업 진출계획이 없어 향후 성장잠재력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보수적인 경영전략에 대해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51.2%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영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해 '호전될 것'(11.0%) 보다 4배 더 높게 나타났다.



“아재” 아닙니다, “뉴트로”입니다

편의점 업계, ‘옛날 것’ 새롭게 해석 ‘뉴트로’ 흐름 이어져

뒷걸음질 걸려왔던 ‘옛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뉴트로(Newtro: 새로운 것을 뜻하는 new와 복고라는 의미의 retro의 합성어) 흐름이 편의점 업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씨유(CU)는 삼양과 손잡고 삼양의 장수 과자인 별뿔빼이·사또밥·짱구를 새롭게 해석한 제품을 오는 27일부터 판매한다. 20~30대가 주로 찾는 편의점에서 처음 출시된 40년이 넘는 이들 제품을 내놓는 건 역시 뉴트로 영향 때문이다. ‘별뿔빼이’는 ‘뽕빼이 간장 떡볶이’로 재탄생한다. 별뿔빼이는 올해로 48주년을 맞은 삼양 최장수 과자다. 뽕빼이 간장 떡볶이는 별뿔빼이의 짭조름한 감칠맛과 특유의 짜장색을 모티브 삼아 매콤하고 짭짤한 간장소스로 양념한 쌀 떡볶이떡이로 다시 태어났다. 1986년생인 사또밥은 오징어와 만났다. ‘사또밥 오징어’는 진미채와 사또밥 특유의 고소한 옥수수버터맛 소스가 만난 제품으로 술 안주로 제격인 제품이다. 20~30대가 가장 많이 찾는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유행에도 민감한 편의점들은 뉴트로 상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앞서 세븐일레븐은 ‘삼양라면 1963’을 단독 판매했다. 국내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이 1963년 처음 등장했을 때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한 포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에스(GS)25는 최근 ‘황금왕뚜껑’ 등 ‘경양식치즈함박도사리’ 등 복고 감성이 있는 메뉴로 도시락을 만들어 출시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중요하고 중요한 광주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